



# ONE DAY Festival

Official Report

2014.7.12

Website

[www.thc-project.com](http://www.thc-project.com) (Project)

[www.freepiano.net/thc](http://www.freepiano.net/thc) (House Concert)

SNS

Youtube [www.youtube.com/thehouseconcert](http://www.youtube.com/thehouseconc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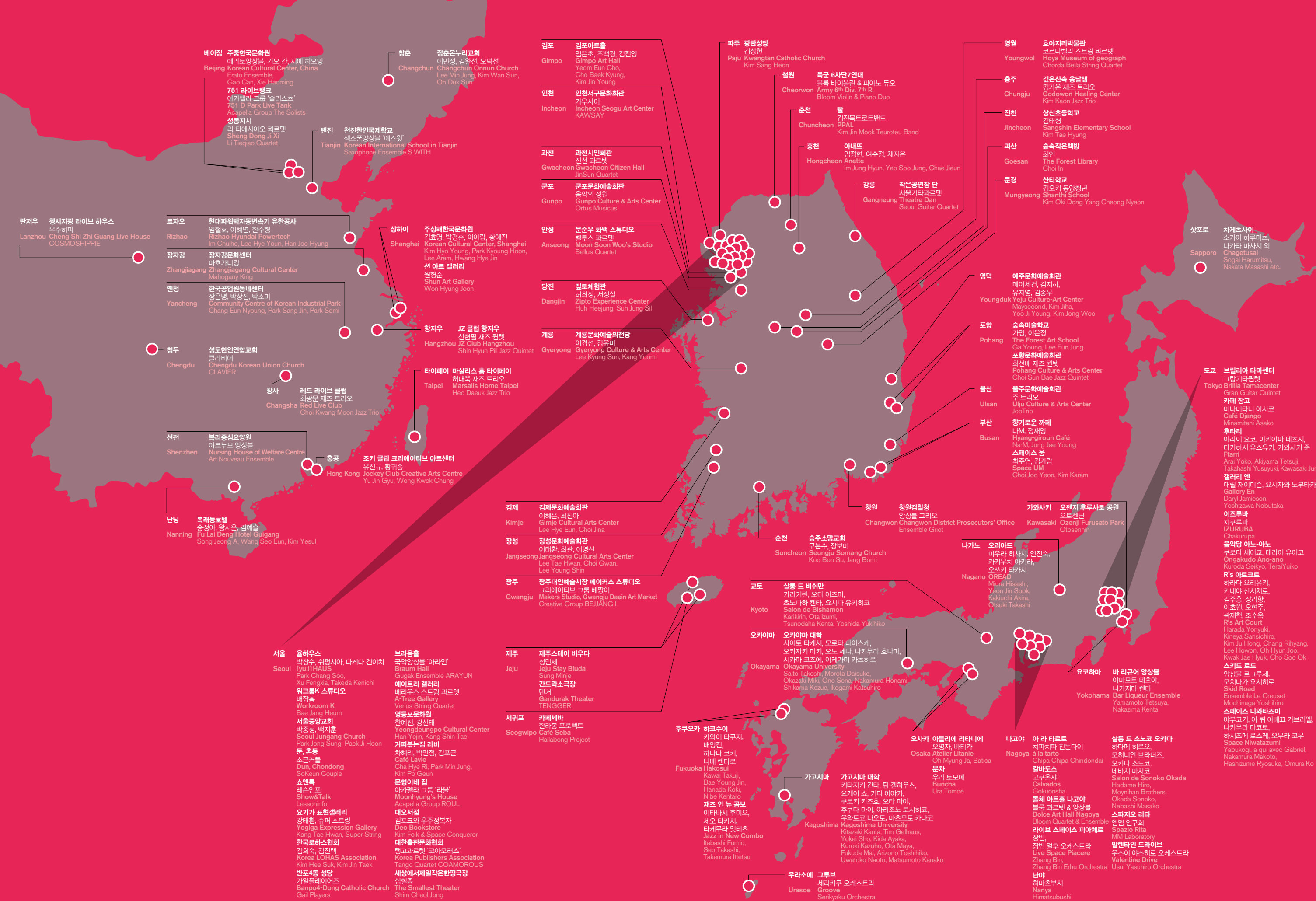
Facebook [www.facebook.com/thehouseconcert](http://www.facebook.com/thehouseconcert)

Twitter [www.twitter.com/hconcert](http://www.twitter.com/hconcert)

Blog [hconcert.tistory.com](http://hconcert.tistory.com)

Contact us

+82-2-576-7061 +82-10-2223-7061, [hconcert@naver.com](mailto:hconcert@naver.com)



‘원데이 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하루(one day)에 열리는 축제이다.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시간에 여러 공간에서 공연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이 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징이다. 대한민국에 ‘하우스콘서트’ 열풍을 불러일으킨 작곡가 박창수의 ‘더하우스콘서트’ 주최 아래 2013년 ‘원데이 페스티벌’이 처음 개최되었으며, 한국 전역에서 65개의 공연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동시에 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공간의 제약물 두지 않고 문화예술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운영 소공연장, 미술관, 학교, 병원, 군부대 등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이 펼쳐져 아티스트와 관객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도왔으며 총 294명의 아티스트들이 약 1만 명의 관객과 만났다. 2014년에는 이를 보다 확대시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개최되어 7월 12일 오후 7시(중국은 현지시각 6시), 세 나라에서 총 94개의 공연이 일제히 시작되었다. 2014 원데이 페스티벌 역시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문다는 컨셉트를 유지하여 공연장 외에도 소소하게 작은 공간에서 열리는 소규모 콘서트를 통해 아티스트와 관객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물론, 오랜 시간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3국 간의 나라 간 경계를 허물고 음악으로 하나 되자는 뜻을 담았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연이 시작된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을 뜻한다.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음악을 마주하지만, ‘특정한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 그 자체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하나(one) 될 수 있음을 페스티벌을 통해 보여주었다.

# ONE DAY Festival

“ONE DAY Festival” is a project that holds numerous concerts literally just for “One Day.” The most remarkable characteristic is, as a matter of course, that concerts are held at the same time. This festival firstly began from 2013 directed by composer Park Chang Soo who brought the House Concert Craze all over Korea. 65 concerts were held throughout Korea simultaneously and got a huge attention from people. On that day, 294 artists and 10,000 audiences participated in the festival and shared the moment at different places including culture & arts centers, private theaters, galleries, schools, hospitals and military camps. Expanding the project to Northeast Asia, 94 concerts in total will be held throughout Korea, China and Japan simultaneously at 7p.m. (6p.m. local time in China) on July 12<sup>th</sup> of 2014. The original concept of ONE DAY Festival which is to cast away all prejudice and understand each other still remains. Not only closing the distance between artists and audience, this moment will also tear down the walls between countries and let people be united through music. If it is possible to hold concerts simultaneously at different places, it is also possible to unite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by sharing the moment. Although we cannot see each other at this very moment, it is clear that we are still one with the fact that we are sharing and feeling this moment together.

2014.07.12 SAT  
19:00 (KOREA, JAPAN) / 18:00 (CHINA, local time)  
presented by THE House Concert  
sponsored by Arts Coucil Korea





## 94 VENUES, 94 CONCERTS

‘2014 원데이 페스티벌’은 **한·중·일 3개국 56개 도시, 총 94개의 공간**에서 94개의 공연이 동시에 개최되었다. 공연이 열리는 공간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공연장을 기본으로 재즈클럽과 카페, 학교, 종교시설, 군부대, 공공기관, 가정집 등 다양한 공간이 페스티벌의 무대가 되었다.

For the 2014 One Day Festival, 94 performances were held simultaneously at 94 venues in 56 cities throughout Korea, China, and Japan. Since there were no restrictions on the type of venue, performances were held not only at concert halls, but also in jazz clubs, cafes, schools, public buildings, private homes, and even on religious sites and military bases.

	개최도시 CITY	공간 VENUE	관객 AUDIENCE
한국 KOREA	29	47	6,526
중국 CHINA	15	18	3,776
일본 JAPAN	12	29	2,701
합계 TOTAL	56	94	13,003

## 13,003 AUDIENCE MEMBERS

이번 페스티벌은 총 13,003명의 관객들과 함께했다. (한국6,526명, 중국 3,776명, 일본2,701명) **한국**에서는 극장판 하우스콘서트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공연에서 관객들은 객석이 아닌 무대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다. 또한 전년도 페스티벌에 비해 공연장이 아닌 카페, 학교 등에서의 공연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져, 많은 관객들이 다양한 대안공간을 찾았다. **중국**은 한국문화원(베이징, 상하이)과 한인회의 협조로 다수의 공연이 개최되어 관람객 중 한인들의 비율이 높았으나, 중국 현지 기획자와의 협업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 아티스트들의 공연에 대한 중국 현지인들의 호응도 끌어낼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일본 현지인의 관람 비율이 월등히 컸다. 소규모 공간에서의 공연들이 많았던 만큼 각 공간별 관객 수는 많지 않았으나, 관객들은 골목마다 소소하게 살아 있는 특색있는 공간들을 자발적으로 찾아 공연의 의미를 더해주었다.

A total of 13,003 people came to see the performances of this year’s festival (Korea:6,526, China: 3,776, Japan:2,701). With the popularization of the “House Concert” format in Korea, audiences of performances held in cultural centers sat not in typical seating but on the stage with the performers. Also, compared to last year, there was more interest in attending concerts in non-traditional performance spaces, such as cafes and schools, with an unexpectedly large number of people seeking out such performances this year. In China, most of the performances were held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s (Beijing and Shanghai) and Korean communities in China. Although a large proportion of the audience members were Korean, cooperation with local Chinese planners and increas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resulted in the performances attracting significant attention from the Chinese public as well. In Japan,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audience members were Japanese. Although the audience size per performance was small, due to the scale of the venues, the performances were made more meaningful by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many local residents.







조승희©김은산속 응달샘



## 374 Artists

94개의 연주팀, 총 374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자국의 아티스트가 중심이 되었으며, 각각 클래식과 실험장르 아티스트의 비중이 높았다. 중국의 경우 주로 한국에서 아티스트가 파견되어 공연하였다. 또한 한 중 일의 의미가 더욱 특별히 담긴 협업 무대가 주목을 받았다.

A total of 374 artists working together in 94 teams participated in the festival. In Korea and Japan, most of the performers were Korean and Japanese, with a large proportion of classical and experimental artists. In China, the majority of the performers were sent from Korea. The collaborative performances received particularly intense interest as audiences recognized the significance of artists from all three countries working together.

Genre	Percentage
클래식 Classical music	46.8%
대중음악/재즈/월드뮤직 Popular/jazz/world music	31.9%
실험 Experimental art	18.1%
국악 Korean traditional music	3.2%

Country	Location	Performance Details
KOREA	Seoul   yulHAUS	Free Music(improvisation) by three musicians from Korea, China, and Japan
	Cheorwon   7th Regiment of the 6th Army Division	Classical music performance by young Japanese female duo
CHINA	Beijing   Korean Cultural Center, China	Collaborative performance by one of Korea's most famous classical ensembles and two Chinese violinists
	Hong Kong   Jockey Club Creative Arts Centre	Collaborative performance by Korean and Chinese mime artists
JAPAN	Tokyo   R's Art Court	Impromptu performance by Japanese artists, joint performance of Japanese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Nagoya   Live Space Piacere	Erhu (traditional Chinese instrument) performance
	Fukuoka   Hakosui	Combination of impromptu Japanese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Chinese martial arts
	Hokkaido Chagetusai	Performance by Japanese DJs in chinese restraurant





Media Report



보도결과 종합 Result of Report

구분 Classification	매체수 Number
주요보도 Main Report	17
지역매체 Local Media	43
통신사·인터넷뉴스 News agency-Internet news	25

총계 TOTAL 83

주요보도 Main Report

매체명	보도날짜	제목
재외동포신문	2014. 05. 17	재중국한국인회, ‘원데이페스티벌’공연 협약서 체결
조선일보	2014. 07. 02	공연합니다, 韓中日 94곳서 한남한시에
연합뉴스	2014. 07. 02	[서울] 한중·일서 예술가 400명이 94개 공연을 동시에
국민일보	2014. 07. 03	한·중·일 예술가들, 94개 공연 ‘연합작전’… ‘원데이 페스티벌’ 7월 12일 3국 동시 개최
아시아투데이	2014. 07. 04	한·중·일서 예술가 400명이 94개 공연 동시에 선보여
서울신문	2014. 07. 07	12일 오후 7시 韓·中·日 3국 예술로 하나가 된다
파이낸셜뉴스	2014. 07. 09	‘더하우스콘서트’ 박창수 대표 “문화 저변 넓히기… 한중일 손 잡았습니다”
Asahi Newspaper	2014. 07. 10	Japanese classical duo to perform at S. Korean military facility (‘2014 원데이 페스티벌’ 日·韓·中 94국 동시 개최… 日 여성연주가, 韓 최진방 부대에서 콘서트)
뉴시스	2014. 07. 11	[서울] 한·중·일, 56개 도시 94개 공연 12일 동시 시작 ‘원 데이 페스티벌’
정책브리핑-정책기자마당	2014. 07. 14	한남한시 ‘원데이 페스티벌’ 열린 서훈 명물 대오서점
재외동포신문	2014. 07. 15	ONE DAY Festival' 한·중·일 3국에서 94개 공연 동시에
信濃毎日新聞 (시나노 마이니치신문)	2014. 07. 15	音楽でつながる 日中韓3ヵ国 (음악으로 연결되는 한중일 3개국)
정책브리핑-정책기자마당	2014. 07. 16	성당이 연주장으로… ‘원데이 페스티벌’ 파주
재외동포신문	2014. 07. 16	천천한국상화·천천한국인회 S.WITH 초청 색소폰 앙상블 공연
정책브리핑-정책기자마당	2014. 07. 16	화백의 집에서 듣는 실내악… ‘원데이 페스티벌’ 안성
MBC뉴스데스크	2014. 07. 21	한·중·일 3국서 동시에 열린 ‘하우스콘서트’
월간 객석	2014. 08	2014 한중일 원데이 페스티벌

지역보도 Local Media

매체명	보도날짜	제목
중부일보	2014. 06. 30	내달 12일 한·중·일 연합 음악축제 ‘One Day Festival’ 개최
울산매일신문	2014. 07. 01	“한·중·일 94국 동시 공연… 7월12일 ‘원데이 페스티벌’ 울산 ‘주트리오’가 꾸미는 하우스콘서트”
전북일보	2014. 07. 02	한·중·일 예술가 400인 94곳서 동시 공연
여성종합뉴스	2014. 07. 02	94개 공연 동시에 ‘원데이 페스티벌’
제주일보	2014. 07. 03	한·중·일 94곳 문화공간서 공연 동시에 열려
경상일보	2014. 07. 03	울산, 베이징, 오키나와, 원데이 페스티벌… 한·중·일 3개국 94개 지역서 동시 공연
광주드림	2014. 07. 06	대인예술아시아장 ‘별장’, 두 번째 밤 밝힌다
Jeju Weekly	2014. 07. 07	“One Day Festival” Celebrates Regional Friendship
제민일보	2014. 07. 07	한중일, 음악으로 하나
한라일보	2014. 07. 07	[무대&미술] 7월 7~7월 13일
프라임경북뉴스	2014. 07. 07	영덕군, 원 데이 페스티벌 개최
영남타임즈	2014. 07. 07	[포항] 한국 재즈 1세대 거장의 귀환! ‘최선배 재즈 퀸텟’초청 공연
영덕타임뉴스	2014. 07. 07	영덕군, 올해 One Day Festival!! 예주에서 만나다!!
금강일보	2014. 07. 08	딱 하루, 韓·中·日 동시다발 축제 열린다
대구일보	2014. 07. 08	영덕서 ‘한중일 원데이 페스티벌’
강원도민일보	2014. 07. 08	한중일 연주자 ‘異空同時’ 공연
GBN 경북 방송	2014. 07. 08	한국재즈 1세대 거장의 귀환! ‘최선배 재즈 퀸텟’ 초청 공연
경북도민일보	2014. 07. 08	단 하루 같은 시간, 韓·中·日 문화로 소통
국제뉴스	2014. 07. 09	호아지리박물관 ‘2014 뮤지엄 콘서트’ 개최
경상매일	2014. 07. 09	하나되는 객석과 무대 ‘하우스 콘서트’
경기신문	2014. 07. 09	“독특한 공연 만나보세요”
경북매일	2014. 07. 09	한국재즈 1세대 거장의 귀환
한라일보	2014. 07. 09	그 날 하루, 무대를 즐겨라
강원일보	2014. 07. 09	[영월] 아름다운 선율로 만드는 한여름밤의 추억
제주매일	2014. 07. 09	이번주 토요일이 특별한 이유는?
강원타임즈	2014. 07. 09	영월호아지리박물관, 2014 수주사랑 작은 음악회 개최
경북도민일보	2014. 07. 09	객석 의자가 아닌 무대 위에 앉아 최선배 재즈 퀸텟 더 가까이 느껴보세요
경기신문	2014. 07. 10	94개의 공연 ‘한중일’ 동시에 ‘광광’
경상매일신문	2014. 07. 10	하나되는 객석과 무대 ‘하우스 콘서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2014. 07. 10	무대에 경계는 없다 - 한중일 동시 개최하는 원데이 페스티벌
경상매일	2014. 07. 10	‘원 데이 페스티벌’ 영덕 예주서 만나다
광주일보	2014. 07. 11	한·중·일 아티스트 ‘100개 공연’ 동시 개최
경북일보	2014. 07. 11	내일 딱 하루! ‘한·중·일’ 예술인 축제
경기일보	2014. 07. 11	[주말캘린더] 연극 ‘만리향’ 공연 외
강원일보	2014. 07. 12	오늘 원데이 페스티벌 한·중·일 3국 공연 펼쳐
불교공뉴스	2014. 07. 14	진천 상신초 원데이 페스티벌
국제뉴스	2014. 07. 14	[포토]진천 상신초, 3개국 음악축제 열려
충청매일	2014. 07. 14	감동향연 지구촌 적시다
중부매일	2014. 07. 14	지구촌과 음악축제 즐겼다
충북일보	2014. 07. 14	진천 상신초에서 한중일 연합작전, 2014 원데이 페스티벌 열려
불교공뉴스	2014. 07. 15	진천 상신초, 한중일 원데이 페스티벌
제민일보	2014. 07. 16	“이렇게 큰 악기 처음봐”
The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agoshima	2014. 07. 17	“日中韓「同時演奏会」、本学が鹿児島内で唯一参加(한중일 ‘동시연주회’, 본교 카고시마현내 유일한 참가)”

통신사·인터넷뉴스 News agency-Internet news

매체명	보도날짜	제목
아시아경제	2014. 07. 01	장성군, 12일 ‘ONE DAY FESTIVAL’ 공연 개최
뉴스웨이	2014. 07. 02	장성서 12일 ‘One day festival’ 공연
NSP통신	2014. 07. 02	장성군, 원 데이 페스티벌 개최
WoWiKorea	2014. 07. 02	“韓中日の音楽家400人 12日に各地で同時に公演(한중일 음악가 400인, 12일 각지에서 동시 공연)”
민중의 소리	2014. 07. 03	한중일서 동시에 즐기는 ‘원데이 페스티벌’
인터뷰365	2014. 07. 04	‘원데이페스티벌’ 한중일 3개국 아티스트 400명 동시다발 공연
CBN 뉴스	2014. 07. 07	한국재즈 1세대 거장의 귀환! ‘최선배 재즈 퀸텟’ 초청 공연
시사제주	2014. 07. 08	카페세바, ONE DAY Festival - 한라봉 프로젝트
제주의소리	2014. 07. 08	한중일 감뻘 축제, 제주서 느껴세요
뉴스1	2014. 07. 09	김제시, 12일 하우스콘서트, ‘One Day Festival’ 연주회
뉴시스	2014. 07. 09	[김제] 하우스콘서트 ‘One Day Festival’ 12일 공연
NSP통신	2014. 07. 09	[지자체동정] 김제 청운사서 ‘하스백련축제’ 외
참뉴스	2014. 07. 09	호아지리박물관, ‘하우스 콘서트’ 개최
뉴시스	2014. 07. 10	[춘천] ‘뿔’에서 펼쳐지는 한중일 94개 공연
뉴스에듀	2014. 07. 11	국악앙상을 ‘아라랏’의 “팍스토리(Fox Story)” 공연 개최
제이누리	2014. 07. 11	단 하루 한·중·일 세곳서 동시에 펼쳐는 무대는?
뉴시스	2014. 07. 11	[서울] 한·중·일, 56개 도시 94개 공연 12일 동시 시작 ‘원 데이 페스티벌’
뉴시스	2014. 07. 12	[춘천] 한·중·일 3개국 94개 공연… ‘2014 원데이 페스티벌’
뉴시스	2014. 07. 12	[영월] 영월 호아지리박물관에서 열린 ‘2014 원데이 페스티벌’
아시아뉴스통신	2014. 07. 14	진천 상신초서 한중일 원데이 페스티벌 열려
JBEN중부뉴스	2014. 07. 14	진천 상신초, 2014 원데이 페스티벌 열려
에듀뉴스	2014. 07. 15	충북 진천 상신초에서 ‘원데이 페스티벌’ 열려
한국인터넷뉴스	2014. 07. 15	진천 상신초에서 한중일 연합작전, 2014 원데이 페스티벌 열려
단비뉴스	2014. 07. 19	한중일 94국 동시 공연, 이게 가능해?
Hong Kong Arts Administrators Association (홍콩예술행정인원 협회 뉴스레터)	2014. 07. 23	[Let’s Explore!] ONE DAY Festival



[ 조선일보 ]

## 공연합니다, 韓中日 94곳서 한날한시에

하우스콘서트 바람 일으킨 박창수, 예술인 400명과 7월 12일 同時 공연  
클래식·재즈·전통음악 등 연주 “이웃국끼리 음악으로 소통했으면...”  
김기철 기자

이 남자, 또 일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작년 7월 전국 65개 공연장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클래식과 재즈 콘서트를 열더니, 올해는 국제적으로 판을 키웠다. 한·중·일 56개 도시에서 공연 94개를, 그것도 한날한시에 열겠다고 나선 것이다. 12일 오후 7시(한국 기준) 한·중·일 연합작전이란 부제 아래 ‘원데이 페스티벌’을 여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박창수(50)씨 얘기다.

오키나와의 한 라이브클럽부터 홋카이도의 종식당까지 일본 29곳, 베이징의 예술특구 798의 공연장과 실크로드 길목 란저우(蘭州)의 클럽, 경제특구 선전(深圳)의 요양원과 광시(廣西)장족(壯族)자치구 중심지 난닝(南寧)의 호텔 연회장 등 중국 18곳, 제주도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국내 47곳에서 동시에 팡파르를 울린다. 클래식과 재즈, 전통음악과 실험음악 등 장르도 다채롭다.

한날한시에 한·중·일 세 나라 94곳에서 공연을 올린다는 발상은 어떻게 나왔을까. “한·중·일은 이웃 나라이지만 역사적 갈등과 정치적 분쟁으로 늘 살얼음판 같은 사이잖아요? 하우스콘서트가 지난 12년간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고 연주자와 관객의 소통을 추구해온 것처럼 음악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나눠보자는 뜻입니다.” 박창수씨는 어눌한 목소리로, 느릿느릿 말했다.

‘원데이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맡은 박창수씨는 2002년 연희동 집 2층 거실에서 음악회를 열어 전국에 ‘하우스콘서트’ 바람을 일으킨 주역이다. 서울대 음대 작곡과 출신인 그는 “마룻바닥에 앉아 음악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음악 감상의 매력이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엄숙한 공연장 대신, 일상 공간에서 음악을 즐기는 문화를 퍼뜨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김선욱과 조성진, 노부수 콰르텟 등 음악계 스타들은 물론 외르크 데무스 등 해외 저명 연주자도 ‘최대’ 100여명 청중 앞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연주자의 숨소리와 땀방울까지 느낄 수 있는 작은 무대였기에 청중들이 느끼는 감동은 컸다. 지난달 400회를 넘긴 하우스콘서트 관객은 2만7000명이 넘는다.

‘하우스콘서트’ 10주년을 맞은 2012년엔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이란 이름 아래, 전국 곳곳의 문화예술회관에서 1주일간 100회의 공연을 가졌다. 마룻바닥에 앉아 몸으로 음악을 느끼는 ‘하우스콘서트’의 매력을 전달하기 위해 관객들을 객석 대신 무대 위로 끌어올려 화제를 모았다.

‘원데이 페스티벌’ 공연날인 7월 12일은 12년 전 하우스콘서트가 처음 열린 날. 올해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이 이끄는 에라토 앙상블과 이경선 서울대 교수, 피아니스트 김태형 등 아티스트 400여명이 나선다.

한·중·일 3곳에서 음악회를 동시에 연다는 게 쉬운 리 없다. 박창수 감독과 강선에 ‘하우스콘서트’ 수석매니저 등 스태프 4명이 작년 말부터 일본과 중국을 돌며 음악회 취지를 설명하고 다녔다. 일본은 서울의 ‘하우스콘서트’ 무대에 섰던 연주자들이 거들고 나서서 공연을 조직한 곳이 많지만, 중국은 교민들을 중심으로 현지 기획자들이 나서서 공연을 꾸렸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7000만원을 댔지만, 박창수씨는 1억원쯤 적자가 날 것 같다고 했다. 연주자 대부분이 노 개런티로 나서고, 현지 주최자는 체재비를 대지만 그렇다. 중국으로 가는 국내 연주자 17개 팀 64명 항공료만 해도 3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그는 “12년간 하우스콘서트를 진행하고, 작년부터 원데이 페스티벌을 하면서 민간 재단이나 기업 도움을 받은 적은 적 없다”고 했다. 이제 지칠 법도 한데, 박창수씨는 “내년에는 또 뭘 할지 궁금하시죠? 비밀입니다”라고 했다.

(2014년 7월 2일 조선일보 기사 전문)

[ Chosun Ilbo ]

## Ninety-four performances held on the same day at the same time in Korea, China and Japan

House Concert trendsetter Park Chang Soo will be performing on July 12 at the same time with 400 other artists  
Diverse variety of performances to be held, including classical, jazz and traditional music  
Park hopes neighboring countries in East Asia can learn to communicate through music

by Kim Ki Chul

Park Chang Soo has done it again. Only this time, he has done it on an even bigger scale. After holding classical and jazz concerts on the same day and time at 65 venues throughout Korea last July, Park has expanded this year's event to the international stage. His ambitious goal is to hold 94 performances in 56 cities in Korea, China and Japan, all on the same day, at the same time. The following is the story of pianist and composer Park Chang Soo(50), who will host the One Day Festival at 7pm (Korean local time) on July 12, under the title "Korea-China-Japan Joint Operations".

The curtains will be raised for simultaneous performances in various locations: 29 venues in Japan, from a live club in Okinawa to a Chinese restaurant in Hokkaido; 18 in China, including a concert stage in Beijing's 798 Art District, a club in Lanzhou, a stop on the Silk Road, a nursing home in the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and a hotel banquet hall in Nanning, the capital of the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and 47 in Korea, ranging from Jeju Island to Cheorwon, Gangwon Province. The variety of genres will be fairly diverse, including classical, jazz, traditional and experimental music.

How did the idea come about for having performances in 94 places in three countries all at the same time? "Korea, China and Japan are neighbors, but they are always on thin ice with one another because of historical conflicts and political disputes," Park answered, slowly and in an almost inaudible voice. "Just as the House Concert has broken down the barrier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stage, establish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musicians and the audience, for the past 12 years, we wanted to share this experience of coming together through music."

Park,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One Day Festival, i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House Concert series, which began with a concert in the living room of his two-story home in Seoul's Yeonhui-dong in 2002. A composition maj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Music, Park shared his memories of that landmark day: "I realized once again that the true beauty of listening to music lay in what I felt while sitting on the floor, letting the music wash over my entire body. Instead of a formal concert hall, I wanted to spread a culture where music can be enjoyed in everyday places." Famous Korean musicians, including pianists Kim Sun Wook and Cho Seong Jin and the Novus Quartet, as well as renowned international performers such as Jörg Demus, have performed for audiences of a maximum

of 100 people. As these performances are small enough that members of the audience can hear the performer's breathing and even see beads of sweat on their faces, their impact has been significant.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attended the House Concerts, 400 of which have been held as of June 2014, now exceeds 27,000.

In 2012, 10 years since the first House Concert, 100 performances were held throughout Korea over the course of one week at culture and art halls, under the title "House Concert in Your Town". The performances drew significant attention for seating only a limited number of concertgoers directly on the stage, allowing everyone to experience the music while sitting on the wooden stage floor. The very first House Concert was held 12 years ago on July 12. This year, 400 Korean artists and performers were involved, including the Erato Ensemble, led by violinist Yang Sung 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Lee Kyung Sun; and pianist Kim Tae Hyung.

Of course, it will be no easy task to hold such concerts simultaneously in three different countries. Beginning late last year, Director Park Chang Soo, Chief Manager Kang Sun Ae, and two staff employees traveled to Japan and China to coordinate the event and explain the purpose of the One Day Festival. In Japan, many of the performers who will be participating in the One Day Festival have planned their own performances, while in China, local planning agencies are organizing the performances based on support from Korean communities in China. The Arts Council Korea donated KRW 70 million toward the event, but Park predicted a deficit of KRW 100 million.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most performers consented to participating without a guarantee, while local hosts will provide accommodations and living expenses for performers from overseas. For example, the cost of airfare alone for the 64 Korean performers who will travel to China well exceeded KRW 30 million. Park remarked, "For the 12 years that we have held the House Concert, as well as last year's One Day Festival, we have never once received assistance from private foundations or companies." Under such tight financial restrictions, one would think that the work is too exhausting, but Park Chang Soo remains enthusiastic. "Aren't you curious about what we're planning for next year? It's a secret!"

(Full text of article published in July 2, 2014 edition of the Chosun Ilbo)





[ 서울신문 ]

## 12일 오후 7시 韓·中·日 3국 예술로 하나가 된다

‘2014 원데이페스티벌’ 클래식·재즈·국악·마임·무용 등 94개 동시 공연

정서린 기자

한날 한시 94개의 공연이 한·중·일 3개국을 동시에 습격한다. 역사·영토 분쟁 등으로 갈등이 끊일 날 없는 동아시아를 하나로 잇는 더하우스콘서트스의 ‘2014 원데이페스티벌’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예술가들의 문화 교류는 클래식, 재즈, 아카펠라, 실험음악, 국악, 마임, 무술무용 등 경계도 없고 편견도 없다. 공연 잔치가 벌어지는 결전의 날은 오는 12일 오후 7시(중국 현지시간 6시).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피아니스트 김태형, 더블베이스 연주자 성민재, 색소포니스트 김오기 등 3개국 아티스트 400여명은 이날 이 시간만큼은 한마음으로 뭉친다. 이날은 12년 전 하우스콘서트가 첫발을 내디딘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다. 피아니스트인 박창수 더하우스콘서트 대표가 지난해 초부터 한·중·일 원데이페스티벌을 구상한 데는 날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3개국의 현실에 대한 우려가 깊이 반영됐다. “세 나라는 공통의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지만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 번도 서로 동지의식을 가진 적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서로를 묶을 필요가 있고 그 바탕을 밑바닥에서부터 다져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연들이지만 이렇게 문화적인 씨앗을 뿌려 본 거죠.” 공연장을 벗어나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하우스콘서트스의 취지답게 한·중·일 94개 공연장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와 성격을 품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국 28개 시·군에서 47개 공연이 열린다. 일본의 젊은 여성 연주자들(브루크프렛&앙상블)이 전방인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6사단 7연대를, 한국의 앙상블그리오는 경남 창원검찰청을 찾아가 예술의 향취를 불어넣는다. 1934년에 지은 한옥 건물에 자리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방, 대오서점(종로구 누하동)을 찾은 관객들은 대청마루에 앉아 포크밴드(김포크밴드)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율하우스(강남구 도곡동)에서는

피아니스트 박창수, 중국 구쟁 연주자 쉬펑시아, 일본 일렉트릭 고토 연주자 다케다 겐이치 등 한·중·일 아티스트들의 재기 넘치는 즉흥연주가 여름밤을 깨운다. 일본에서는 29곳, 중국에서는 18곳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중국 경제특구 선전에서는 요양원에서 중국과 한국 연주자로 구성된 아르누보앙상블이 치유의 음악을 들려 준다. 난닝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는 우리 가야금과 타악, 판소리가 울려 퍼진다.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을 지낸 마이미스트 유진규와 홍콩의 마임·유리 아티스트 황귀중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는 홍콩의 한 아트센터에서 마련된다. 일본 도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즉흥음악의 거장으로 불리는 하라다 요리유키와 한국 대표 국악단 노름마치, 피리 연주자 객재혁의 신명나는 한마당이 벌어진다. 일본에 정착한 지 22년이 되는 중국 전통악기 열후 연주자 장빈은 나고야의 한 라이브클럽에서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중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파한다.

(2014. 7. 7 서울신문 기사 전문)

[ Seoul Shinmun ]

## Korea, China and Japan come together through music on 12<sup>th</sup> July, 7pm

Ninety-four simultaneous performances will be held for the 2014 One Day Festival, including classical, jazz and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s, as well as mime and dance.

By Jung Seo Rin

On the same day at the same time, 94 separate performances will take Korea, China and Japan by storm. The occasion is the 2014 One Day Festival, a part of the House Concert series, which aims to bring together East Asian countries that are constantly in conflict with one another due to historical issues and territorial disputes. This festival, which includes performances of classical, jazz, a capella, experimental and traditional music, as well as mime and martial art dance, is expected to create unprejudiced cultural exchange between artists that transcends national borders. This remarkable event will be held on 12th July at 7pm (6pm, local time in China), when over 400 artists from Korea, China and Japan, including violinist Yang Sung Sic, pianist Kim Tae Hyung, double bassist Sung Minje, and saxophonist Kim Oki, will perform simultaneously. July 12 is also significant as it is the anniversary of the first House Concert, which was held exactly 12 years earlier. For pianist and CEO of the House Concert, Park Chang Soo, the planning of the Korea-China-Japan One Day Festival, which he began in early 2013,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his concern over the steadily deteriorating relations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se three East Asian countries share the same cultural background, but because of enduring conflicts and disputes, I don’t think that they have ever felt a sense of comradery. This is why we need a long-term connection that can bind them together, which I believe needs to be established from the ground up. That’s why we are holding these concerts, which, although small in scale, are actually important seeds of culture.” Befitting the aim of the House Concert - transcending the traditional concert stage medium and breaking down the barrier between the performers and the audience - each of the 94 performances to be held in Korea, China and Japan will have their own unique characteristics and stories. In Korea, 47 performances are to be held in 28 cities and counties throughout the country. The Bloom Quartet & Ensemble, a young Japanese female ensemble, will perform for the Seventh Regiment of the Sixth Army Division,

stationed in Cheorwon, Gangwon-do Province (close to the DMZ), while the Korean group Ensemble Griot will perform at the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n Changwon, Gyeongsangnam-do Province. Visitors to Seoul’s oldest second-hand bookstore, Dae-Oh Bookstore (Nuha-dong, Jongno-gu), which is housed in a traditional Korean hanok that was built in 1934, will be treated to the music of the Kim Folk Band while sitting on the bookstore’s *daecheong maru* (open wooden floor space). At yulHAUS (Dogok-dong, Gangnam-gu), Korean, Chinese and Japanese artists, including pianist Park Chang Soo, Chinese guzheng player Xu Fengxia, and Japanese electric koto player Takeda Kenichi, will light up the summer evening with a creative impromptu performance. More performances are scheduled to be held in 29 venues in Japan and 18 venues in China. At a nursing home in the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an art nouveau ensemble made up of Chinese and Korean performers will play music to support the health of their audience. A hotel banquet hall in Nanning, Guangxi Zhuang, will be filled with the sounds of the *gayageum* (Korean harp), Korean percussion instruments, and the *pansori* (Korean folk play). Also, a mime performance by mimist Yu Jin Gyu, who has served as art director of the Chuncheon International Mime Festival, and Wong Kwok Chung, a Hong Kong-based mime and glass artist, is slated to be held at an art center in Hong Kong. In Tokyo, world-famous “master of impromptu music,” Harada Yoriyuki,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troupe Noreummachi, and *piri* (Korean pipe) player Kwak Jae Hyuk will hold a lively performance together. Zhang Bin, an *erhu* (traditional Chinese instrument) player who has lived in Japan for 22 years, will demonstrate the beauty of Chinese music with his orchestra for an audience at a live club in Nagoya.

(Full text of article published in July 7, 2014 edition of the Seoul Shinmun)



[ 월간 객석 ]

## 2014 한·중·일 원데이 페스티벌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 40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94개 공연이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 예술이라는 가장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순간의 기록을 옮겨본다.

김선영 기자

원데이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딱 하루만 열리는 축제다. 한날 한시 다양한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공연은 오로지 원데이페스티벌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원데이페스티벌은 예술을 매개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은 시간이었다. 10년 넘게 ‘마룻바닥’ 음악회인 하우스콘서트를 이끌고 있는 작곡가 박창수는 2012년 ‘프리, 뮤직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지난 2012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대한민국 38개 시군에서 65개 공연을 올렸다. 올해는 그 규모를 확장해 한국·중국·일본 3개국에서 40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94개 공연으로 꾸며졌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동시다발로 이뤄진다는 조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일했다.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 한국 28개 시군에서 총 47개 공연, 중국 15개 시에서 총 18개 공연, 일본 11개 시에서 29개 공연이 동시에 열렸다. 이번 원데이페스티벌 역시 일반적인 공연장 외에도 미술관·카페·서점·성당·가정집 등 다양한 장소에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며 다채로운 모습으로 진행됐다. ‘경계 허물기’는 원데이페스티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이미 하우스콘서트를 통해 연주자와 객석의 거리 좁히기를 10년 넘게 시도해 온 박창수는 올해 원데이페스티벌을 통해 3국이 정치·사회 부문에서 극복하지 못한 첨예한 대립 관계를 예술로 허물고, 각 지역마다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걸음을 내디뎠다. 7월 12일, 한국·중국·일본에서 펼쳐진 그 하루, 한 시간 동안의 뜨거웠던 울림을 지면에 옮겨본다. 한국 율하우스에서 열린 공연 리뷰와 더불어 같은 시각 중국과 일본에서 현지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은 공연의 풍경을 페스티벌에 참여한 연주자들에게 들어보았다.

[ 베이징 ]

###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과 에라토앙상블의 이야기

지난해 10월 하우스콘서트에 참여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올해 원데이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원데이페스티벌의 모든 공연은 무료 관람이었고, 참여한 우리도 연주료를 받지 않았다. 관객과 함께 음악을 만들고 그로 인해 클래식 음악 저변이 확대된다면 연주료가 지급되지 않아도 우리가 움직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됐다. 따라서 대중에게 익히 알려진 곡이면서도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기준으로 공연 프로그램을 짰다. 우리가 연주한 곳은 베이징에 위치한 주중한문화원 내 갤러리였다. 과연 많은 사람이 모일까 하는 생각에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200여 명의 관객이 흘러 클래식 음악과 한국이 주최하는 공연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정식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 시작 무렵에는 조금 어수선하고 들떠 있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로 공연이 시작되자 관객의 몰입도가 순식간에 높아지면서 이들이 우리의 음악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경청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관객이 공감하고 몰입하는 순간을 공유하는 것은 연주자로서도 짜릿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공연에서 중국인 연주자들과의 협연 또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다.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1043과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함께 연주하면서 이들이 이날 공연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온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공연에 일본인 연주자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를 생각하면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한·중·일 연주자들이 함께 다시 만날 자리를 기대하고 기약하고 싶은 마음이다.

[ Auditorium ]

## Korea-China-Japan 2014 One Day Festival

At 7pm on July 12, 94 performances by over 400 artists were held at the same time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following is a record of the moments when people were able to transcend borders through art, the most open means of exchange.

By Kim Sun Young

Just as its name suggests, the One Day Festival lasts for only a single day. This festival is unique in that it is made up of performances held in a variety of locations on the same day, at the same time. In its second run this year, the festival allowed participants to share time and space through art, and also was a rare opportunity to transcend national borders in thought-provoking ways. Composer Park Chang Soo, who has spent over 10 years heading the House Concert series - a “maru floor”-format concert series in which the audience literally sits on the floor - began the Free Music Festival in 2012. In 2013, 65 performances were held at the same time in 38 cities and counties throughout Korea under the changed name One Day Festival. This year, the scale of the festival was expanded to include 400 artists in Korea, China and Japan and 94 performances. Again, all performances tookplace on the same day, at the same time. At 7pm on July 12, 47 performances were held in 28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18 performances in 15 Chinese cities, and 29 performances in 11 Japanese cities. As in previous years, the 2014 One Day Festival featured a diversity of venues, including not only conventional concert halls but also art museums, cafes, bookstores, cathedrals and private homes, blurring the traditional barrier between stage and audience. “Tearing down barriers” is one of the core principles of the One Day Festival. Through this year’s festival, Park Chang Soo, who has already been bringing performers and audiences closer together for over 10 years, managed to soften the tense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among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through art, and made progress in increasing accessibility to art in regional areas far from each country’s capital city. This article attempts to express in words the one hour of musical passion that washed across Korea, China and Japan on July 12. Along with a review of the performance at yulHAUS in Korea, we will present reports from the performers in China and Japan who resonated particularly well with local audiences.

[ Beijing ]

### Violinist Yang Sung Sic and the Erato Ensemble

Having participated in last October’s House Concert, I decided to take part in this year’s One Day Festival as well. As most people already know, all performances in the One Day Festival are free of charge, and the performers are not paid for their participation. For us, it was reward enough to know that we were making music with our audience, and that this would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boundaries of classical music. We decided to base our program on pieces that are well-known to general audiences as well as pieces by composers who are iconic of their generation. We performed in a gallery inside the Korean Cultural Center of Beijing. I was worried that not many people would show up, so I was surprised by the audience of over 200 that filled the venue. The intense interest of Beijing residents in a classical music performance hosted by Korean musicians was clearly evident. As it was not a regular performance hall, the atmosphere before the performance began was a bit chaotic and exciting. However, once we began playing Mozart’s *Divertimento*, the audience’s focus immediately sharpened, and I keenly felt that they were truly listening to our music. There is probably no greater satisfaction for a performer than of sharing a sense of togetherness and immersion in the music with the audience. Another unforgettable aspect of this performance was the collaboration with Chinese musicians. While playing Bach’s *Concerto for Two Violins* (BWV 1043) and Tchaikovsky’s *Serenade for Strings* together with them, it was obvious just how much they had practiced for the performance. It is a pity that we were not able to work with Japanese musicians for this performance. Considering the delicat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it is understandable to some extent, but I still think that it would have been even more worthwhile to share this experience with musicians from Japan. I hope that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in the future for musicians from all three countries to collaborate and work together.





[ 도쿄 ]

## 노름마치 음악감독 김주홍의 이야기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알즈아트코트에서 열린 원데이페스티벌은 한국과 일본의 연주자들이 전통과 현대를 한자리에서 펼쳐 보인 무대였다. 이날 노름마치의 김주홍·이호원·오현주 외에도 객재혁(피라·태평소), 조수욱(무용), 하라다 요리유키(피아노), 장리향(가야금)이 무대에 올랐다. 형식화된 틀에 맞춰 이어져오는 전통음악과 틀을 넘어서는 즉흥음악이 서로 교차하면서 모두에게 신선하고도 인상적인 공연이 마련됐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음악적인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즉흥음악이 그날 참석한 모두에게 매력적인 장르로 다가왔음은 물론이다. 또 각자가 할 수 있는 작품을 준비해 선보이며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즉흥 속에서 자연스러운 정반합을 이뤄내는 시간이 됐다. 즉흥음악의 대가인 피아니스트 하라다 요리유키의 연주를 보면서 그가 정형적이고 대중적인 멜로디를 알고 있음에도 그 사이를 교묘하게 비켜나가며 집중력을 갖고 자신의 색깔을 구사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김덕수 이후로 한국의 전통 타악팀의 일본 활동이 많이 부진했다. 노름마치는 20년 넘게 나고야에서 전통놀이판 워크숍을 해왔는데 일본의 중심인 도쿄에서 공연을 펼친 것은 원데이페스티벌을 통해 마련된 자리가 처음이었다. 우리의 연주에 반응하는 일본관객들을 보면서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의 전통음악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

[ 서울 ]

## 박창수·쉬평시아·다케다 겐이치의 즉흥연주 공연 관람기

하우스콘서트의 본거지 율하우스는 이번 원데이페스티벌에서 한국·중국·일본 각 국가의 연주자가 모두 모인 유일한 곳이었다. 하나를 모으려는 시작한 관객들은 공연 시작 5분을 앞두고 40명 가량이 됐다. 오후 7시 정각, 한 손에 휴대전화를 쥔 박창수가 관객들 앞으로 나섰다. 그러곤 스태프들과 공유하고 있는 메신저 채팅방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전하기 시작했다. 어느 지역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고, 또 어느 지역은 마지막 마무리에 여념이 없다는 소식을 실시간 사진과 글로 공유되는 모양이었다. 덕분에 그의 소소한 브리핑은 관객들로 하여금 같은 시각, 다른 공간에서 순간을 공유하는 가치를 상기하게 하여 자리에 참석한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제 오후 7시네요. 오늘 저는 연주자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국·중국·일본에서 동시에 열리는 원데이페스티벌이 이제 시작됩니다.”

관객들의 박수에 그의 곁으로 쉬평시아(구쟁)와 다케다 겐이치(일렉트로닉 타이쇼·고토)가

등장했다. 박창수는 쉬평시아와 7년 전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고, 다케다 겐이치는 첫 만남이었다. 이들 사이에는 리하설도 어떤 조건이나 약속도 없었다. 그저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 대한 기억만이 남아 있었다. 박창수는 “작곡이 이뤄지는 과정을 목격하는 것이 즉흥음악의 매력”이라는 말과 함께 “각자가 음악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즉흥음악을 감상하고 즐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약 1시간동안 이뤄진 연주에서 박창수는 피아노 앞에 앉아 느슨함과 팽팽함의 완급을 조절하며 각 연주자가 스스로의 스타일을 드러내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음악구조를 쌓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세 연주자는 서로 주도권을 긴밀하게 주고받으며 연주를 이어갔다. 연주의 모든 과정이 즉흥으로 이뤄지기에 연주자들은 서로를 향해 감각의 날을 세우면서 느낀 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소통하고 있었다.

이날 연주를 위한 악기 구성은 피아노·구쟁·일렉트로닉 타이쇼·고토였는데 셋 다 현을 울려 소리를 내고 연주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무엇보다 박창수는 타현악기인 피아노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쉬평시아는 구쟁을 연주하는 동시에 구음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주술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케다 겐이치는 그 자신의 음악에 집중하면서, 첨예한 음악적 구조를 쌓아 올렸다. 무너뜨리기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로 나아갔다.

심연 속으로 한없이 빠져드는 듯했던 세 사람의 연주는 마치 마법이 풀리듯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곤 세 사람의 연주는 끝이 났다. 연주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다. 이후 쉬평시아의 유쾌한 제안으로 10분 정도 관객 모두가 함께 만드는 즉흥음악이 이뤄졌다. 관객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몸으로 내는 소리의 레이어를 하나씩 만들고 쌓아 올리며 변주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하나의 시간, 하나의 공간 속에서 하나의 순간을 공유하며 흐름의 주제로 하나 되는 경험과 마주했다. 이날 공연에 참석했던 피아니스트 조은아는 “공연 자체가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고 악보에 담길 수 없는 음악, 악보가 필요 없는 음악을 연주해내는 모습이 부러웠다”며 “연주자 세 사람이 주고받는 에너지가 인상 깊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공연 후 만난 박창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는 같은 문화적 기반을 가졌음에도 오랜 기간 역사적 갈등, 정치적 대립을 비롯한 여러 분쟁의 이슈를 안고 있는 한국·중국·일본에서 동시에 공연이 열린다는 것이 이번 페스티벌이 갖는 중요한 의의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번 페스티벌은 세 나라가 갖는 정치적·경제적 측면의 주도권과 달라 문화적인 면에서 한국이 두 나라에 대한 주도권과 적극성을 갖고 하나로 끌어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시간이었다.

(월간 객석 8월호 기사 전문)

[ Tokyo ]

## Kim Ju Hong, music director of Noreummachi

The One Day Festival performance held in R's Art Court in Tokyo's Shinjuku district was a mixture of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brought together in one place through the cooperation of Korean and Japanese musicians. In addition to Noreummachi's Kim Ju Hong, Lee Ho Won and Oh Hyun Joo, the performance was also joined by Kwak Jae Hyuck (*piri*, Korean pipe/*taepyeongso*, Korean double reed wind instrument), Cho Soo Ok (dance), Harada Yoriyuki (piano), and Chang Rihyang (*gayageum*, Korean harp). By alternating between traditional and impromptu music, the artists broke free of conventions and created a remarkably unique experience for everyone present. Of course, the impromptu music performed that day, expressing the emotions of everyone involved in the performance, was particularly well received by the audience. Also, it was clear that the musicians were revealing their true personalities through the natural, unrehearsed harmony that they created. Listening to the pianist Harada Yoriyuki, the “master of impromptu music,” was itself an amazing experience. Even though he played a popular melody, he deftly rose above the conventionality of the piece to create his own signature interpretation. Since Kim Duk Soo, there have been few performances by traditional Korean percussion troupes in Japan. Although Noreummachi has held traditional music workshops in Nagoya for over 20 years, the One Day Festival was our first opportunity to perform in Tokyo. While observing the Japanese audience member's reactions to our music, I thought about the potential of strengthening the presence of traditional Korean music in Japan in the years to come.

[ Seoul ]

## Reflections on Park Chang Soo, Xu Fengxia, and Takeda Kenichi's impromptu performance

yulHAUS, the stronghold of the House Concert, was the only venue of the 2014 One Day Festival where musicians from all three countries were present at once. At five minutes before the concert began, about 40 people had trickled in to enjoy the music. At 7pm sharp, Park Chang Soo appeared before the assembled crowd with his cellular phone in one hand. He then began to briefly summarize the content of the messenger chatroom conversations that the staff had engaged in while organizing the event. The chatrooms revealed the real-time progress of the One Day Festival through photos and messages related to various issues, including which regions had completed their preparations and which were still busy with the final touches. This minor “briefing” reminded the audience that this moment was being shared simultaneously in many other places with many other people, creating a bond tying them all together. “It is now 7pm” said Park. “Today, I stand before you as a musician. May the One Day Festival, which is being held simultaneously in Korea, China and Japan, begin.”

As the audience applauded, Xu Fengxia (*guzheng*) and Takeda Kenichi (*electric taisho koto*) also appeared on the stage. Park had previously performed with Xu seven years earlier, but it was his first collaboration with Takeda Kenichi. The three musicians had no joint rehearsals, agreements, or promises with one another. All they had was a start and an end. Park stated that “the beauty of impromptu music is witnessing the process of composition,” and expressed his hope that the audience “enjoys the impromptu music and notices how each musician structuralizes his or her part.”

During the one-hour performance, Park maintained a balance between relaxation and tension at the piano, allowing the other musicians to show off and develop their styles, while also creating a musical structure of all his own. Throughout their performance, the three musicians deftly took turns assuming the leading role, and as the entire performance was unrehearsed, the musicians were highly attuned to each other's sounds, expressing their feedback through music.

The three instruments used in the performance - the piano, *guzheng* and electric *taisho koto* - are all string instruments, which use vibrations to create sound. Above all, Park demonstrated the range and depth of potential of the piano. Xu Fengxia created a shamanistic and occult-like atmosphere by freely intermingling oral sounds with the sounds of the *guzheng*, and Takeda Kenichi focused on his music, alternately building and toppling highly delicate musical structures, constantly creating new themes.

The music, which had thus far seemed to be plunging endlessly deeper into an abyss, reemerged at the surface, as if breaking free of a magic spell. Little over one hour from its beginning, the performance was over. Afterward, upon Xu's suggestion, the audience joined in creating more impromptu music for about 10 minutes. Under Xu's direction, the audience created layers of sounds using their bodies, thereby composing a variation of the music that had just been performed. Everyone experienced the odd but exhilarating sensation of true cooperation, coming together in the same space at the same time. “The performance was a refreshing surprise,” commented pianist Cho Eun Ah, who also participated in the performance. “It almost made me jealous to see how people could play music that cannot, and need not, be written on a musical score. The flow of energy between the three musicians was remarkable.” After the performance, I exchanged a few words with Park. He emphasized that the main significance of the festival was the simultaneous hosting of performances in Korea, China and Japan, three countries that share the same cultural roots, but have been constantly plagued by long-standing historical and political conflicts. The festival was also an opportunity for Korea,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on the sidelines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play dynamics among the three countries, to demonstrate its ability to proactively lead and bind all three together through culture.

(Full text of article published in August issue of Auditorium)



# The House Concert

‘더하우스콘서트’는 2002년 7월 12일, 음악가 박창수의 자택에서 첫 공연을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에 하우스콘서트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귀로만 들던 음악이 마룻바닥의 진동을 통해 온 몸으로 느껴지는 새로운 경험과 더불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공간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서로의 시선과 호흡을 생생하게 나눌 수 있는 친밀한 분위기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뿐만 아니라 작은 공간의 가능성을 실험해 온 하우스콘서트는, 클래식을 중심으로 국악, 재즈, 대중음악, 실험예술, 인형극, 독립영화 상영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아우르며 현재까지 1천 6백여 명의 아티스트와 함께 해왔다.

2012년부터는 ‘하우스’의 개념을 보다 확대시켜 전국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우스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주자의 전용공간으로 특별하게 여겨졌던 ‘무대’ 위에 관객까지 모두 올라가 연주자와 관객 어우러지는 문화회관 ‘하우스콘서트’ 역시 각 지역의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큰 관심 속에 ‘더하우스콘서트’는 2014년 기준 연간 550여 회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또한 연 1회의 대규모 페스티벌,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가 있는날’의 문화예술회관 특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 신진예술가 발굴 및 공연기획 등 다양한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Firstly held at Park Chang Soo’s house on July 12, 2002, the House Concert has led a new cultural wave in Korea. The House Concert is remarkable due to unusual experience it offers of listening to music with not only ears but also vibration through wooden floors. Also, it is possible for audience to clos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a stage and an auditorium. Consistently making an experiment on small spaces, the House Concert has run the concerts of about 1,600 artists of various different genres such as classical music, traditional Korean music, jazz, popular music, experimental art, puppet show and independent film.

Applying the concept to domestic cultural arts centers, house concerts are even held in rural areas from 2012. House concerts held in suburban cultural art centers are also loved by people due to its original concept, audience seated on a stage and short distance with artists. With much attention, the House Concert has held about 550 concerts in 2014. Also, The House Concert has been hosting an annual festival as well as a yearlong project. In 2013, ‘2013 One Day Festival’ in which 65 performances were presented concurrently throughout Korea was held, and in 2014, the extended version ‘2014 One Day Festival’ presented 94 performances successfully in Korea, China, and Japan. Through these projects, the House Concert has been sowing the seeds of small-scale performances all over the nation and thus strengthening the cultural foundation.



History	
2002.07.12	음악가 박창수 자택에서 제1회 하우스콘서트 시작 Held the 1 <sup>st</sup> House Concert in Park Chang Soo’s house
2005.09.23	제100회 하우스콘서트 Held the 100 <sup>th</sup> House Concert
2008.0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전용공간’ 후원 시작 (2008 - 2014) Sponsored by the Arts Council Korea as a space for performing arts
2008.09.26	제200회 하우스콘서트 Held the 200 <sup>th</sup> House Concert
2008.10.08	공연장소 이전 및 제201회 하우스콘서트 (녹음 스튜디오 ‘클래식 뮤테이션’) Moved to and held the 201 <sup>st</sup> House Concert at the studio Classic Mutation
2009.07.25	공연장소 이전 및 제227회 하우스콘서트 (사진 스튜디오 ‘보다’) Moved to and held the 227 <sup>th</sup> House Concert at the studio BODA
2009.12.26	공연장소 이전 및 제240회 하우스콘서트 (녹음 스튜디오 ‘올하우스’) Moved to and held the 240 <sup>th</sup> House Concert at the studio yulHAUS
2012.07.09 -15	하우스콘서트 10주년 기념 - 2012 프리, 뮤직 페스티벌 개최 (1주일간 전국 21개 지역 100개 공연) Celebration of the 10 <sup>th</sup> anniversary of the House Concert - Free, Music Festival 2012 (100 concerts held throughout 21 cities for a week)
2013.01-12	연간 프로젝트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 착수 (연간 총259회 공연) Launched the yearly project “House Concert in Your Town” (259 concerts held)
2013.07.12	2013 원데이 페스티벌 개최 (전국 65개 공간) One Day Festival 2013 (65 concerts held throughout Korea)
2014.01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가 있는날’ 문화예술회관 특별지원프로그램 주관사 선정 (연간 250회 공연 진행) Selected as the agency of the project “Culture Day” ho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50 concerts held at cultural arts centers)
2014.07.12	2014 원데이 페스티벌 개최 (한중일 총 94개 공간) 2014 One Day Festival (94 concerts held throughout Korea, China and Japan)
2014.08	2014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몸으로 느끼는 소리체험’ 운영 (과천시민회관 컨소시엄) Operated the Saturday Art School 2014 (Gwacheon Citizen Hall consortium)
2014.10.03	2014 울주오디세이 기획 (예술감독 : 박창수) Directed the Ulsu Odyssey (Artistic Director : Park Chang Soo)
2014.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프로그램 ‘하우스토크’ 기획 및 운영 착수 Launch the program “House Talk” at the Arts Council Korea “Artist House”
2014.12.29	공연장소 이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Moved to the “Artist House” of the Arts Council Korea
2014.01-12	연간 550여 회 공연 진행 Approximately 550 concerts held

예술감독	박창수	Artistic Director	Park Chang Soo
고문	김종식	Adviser	Kim Jong Shick
기획	강신애, 한진희	Manager	Kang Sun Ae, Han Jin Hee
스태프(하코너)	강성민, 강신애, 구지연, 구창완, 권형준, 김경식, 김경윤, 김단비, 김만지, 김병직, 김성현, 김신종, 김예진, 김제현, 김준의, 김지영, 도환정, 박경태, 박민수, 박소희, 박예림, 박 원, 박지선, 박현태, 성재우, 손현서, 연미혜, 유재훈, 유철희, 이솔희, 이영민, 이은주, 이현지, 장성학, 장인준, 장정연, 정인해, 정현정, 차신혜, 최정현, 함성애, 홍지원, 황인호	Staff	Kang Sung Min, Kang Shin Ae, Koo Ji Yeon, Gu Chang Wan, Kwon Hyung Joon, Kim Kyung Sik, Kim Kyung Yoon, Kim Danbi, Kim Minji, Kim Byeong Jik, Kim Sung Hyun, Kim Shin Joong, Kim Yejin, Kim Je Heon, Kim Jun Eui, Kim Ji Young, Do Heon Jung, Park Kyung Tae, Park Min Soo, Park Sohee, Park Ye Rim, Park Won, Paik Jisun, Park Hyun Tae, Sung Jae Woo, Son Hyun Suh, Yeon Mihye, Yoo Jae Hoon, Yoo Chul Hee, Lee Sol Hee, Lee Young Min, Lee Eun Joo, Lee Hyun Ji, Jang Seong Hak, Chang In Joon, Jang Jung Yeon, Jung Inhae, Jung Hyun Jung, Cha Shin Hye, Choi Jung Hyun, Ham Sung Ae, Hong Jiwon, Hwang Inho
고마운 분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위원장, 재중한국인회 문화여성위원회 이향연 위원장, 주중한국문화원 김진곤 원장, 주상해한국문화원 김진곤 원장, 김성진, 김주희, 김현석, 박선규, 양성식, 윤수진, 이의경, 이혜은, 허대욱, 쉬 핑시아, 하다메 히로오, 카미야 카즈요시, 진미단, 키무라 노리코, 미나미데 스그루, 우스이 야스히로, 하라다 요리유키	Thanks To	Kwon Young Bin, Director of Arts Council Korea, Lee Hyang Youn, Director of Culture and Women Department, Korean Community of China, Kim Jin Gon, Director of Korean Cultural Center, China, Kim Jin Gon, Director of Korean Cultural Center, Shanghai, Kim Sung Jin, Kim Joo Hee, Kim Hyun Seok, Park Sun Kyoo, Yang Sung Sic, Yoon Sujin, Lee Uikyung, Lee Hye Eun, Heo Daeuk, Xu Fengxia, Hadame Hiro, Kamiya Kazuyoshi, Chan Midan, Kimura Noriko, Minamide Suguru, Usui Yasuhiro, Harada Yoriyuki
디자인	디자인도우	Design	design dodoo